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안

-구약 번역 관련-

강소라*

본고에서는 구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어 자체로도 쉽고 정확한 번역을 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여덟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소제목에 제안을 간단히 제시했으며, 그 아래에는 그 제안에 해당하는 성경의 예를 한 가지 이상 들어 설명하였다. 이 제안들은 중요도 순서로 정리된 것이 아니며, 어떤 항목의 내용은 다른 항목의 내용과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두 원문에 좀 더 가깝고 충실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는 제안으로서, 번역된 단어나 표현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어 사용자들이 번역자가 의도한 의미를 적절히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제공받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본고에 나오는 한글 번역과 장절은 『개역개정』의 번역과 장절을 따랐다. 또한 참고한 한글 번역으로는 『개역개정』과 『바른성경』, 영어번역본으로는 KJV, NIV, NAU, NRS, NLT, TNK가 주된 번역본이다.

1. 가능한 원문의 단어를 생략하지 않고 빠짐없이 번역하라

히브리어 접속사 ו 의 경우는 한국어로 매번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으로 옮기면 불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살펴 넣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창세기 16:2의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אִשְׁמָאֵל 의 번역에는 ‘사람(אָדָם)’이란 단어가 생략되고 ‘들나귀’로만 번역되었다.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존재라는 의미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원문에 나오는 단어의 번역을 빼지 말고 가능한 다 넣어 번역하면서 동시에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여, ‘들나귀 사람’보다는 ‘들나귀 같은 사람’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한세대학교 초빙교수, 구약학.

또 다른 예로 히브리어 וַיִּשְׂכַּח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번역본에서 번역이 안 된 채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의미보다도 וַיִּשְׂכַּח가 ‘왜냐하면’이나 ‘진실로’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וַיִּשְׂכַּח의 번역이 생략되면 וַיִּשְׂכַּח 문장과 그 앞 문장이 관련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시편 4:8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로 번역하기보다는 “...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로 옮기거나 “진실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로 번역하면 나의 안전한 삶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또 시편 107:1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וַיִּשְׂכַּח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정작 וַיִּשְׂכַּח의 번역을 생략한다면, “감사하라” 다음에 나오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문장은 앞의 감사하라는 명령이나 권유와는 별개로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하는 문장으로 해석되기 쉽고, 앞의 감사하라는 명령과의 관련성이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점을 못보고 지나치기 쉽다.

또 번역에 자주 생략되는 부류에 인칭대명사나 인칭대명사 접미어가 있다. 창세기 12:1은 “...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로 번역되어, 원문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접미어인 ‘너’가 대부분 생략되었다. 하지만 원문에 따라 “너의 땅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로 번역하면 원문에 보다 충실한 번역이 되고, ‘너’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아브람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강조되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비슷하게, 창세기 39:10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원문에 따라 “... 요셉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로 번역한다면 원문에도 충실하고, ‘그녀’가 세 번 반복된 점이 부각된 점을 쉽게 놓치지 않게 된다.

2. 가능한 원문에 없는 말을 번역에 덧붙이지 말라

『개역개정』과 『바른성경』 모두 아가 2:7의 אַתָּה אֹהֶבָה עַד שֶׁתִּהְיֶינִי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이라고 번역하여, 내 사랑이 솔로몬임을 넘기지 암시한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랑(אֹהֶבָה)이 원하기 전에는”이라고 나온다. 또한 여기서 ‘사랑’은 추상명사 ‘사랑’으로서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에서 제시하는 솔로몬으로 해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더 정확한 표현으로 번역하라

창세기 30:27의 וַיִּדְבַּר 은 개역개정에서 ‘깨달았다’로 번역되었지만, 원래 이 동사는 ‘점을 쳐서 알아내다’(to learn through divination; NAU, NIV, NRS, TNK)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깨달았다’로 번역하지 말고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해야 적절하다. 또 다른 예로, 창세기 9:24의 בְּנֵי יוֹסֵף 의 בְּנֵי 은 관사와 형용사의 조합으로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Gesenius §133g). 그러므로 ‘작은’ 아들(younger son, 개역개정, KJV)이 아니라 ‘막내’ 아들(the youngest son, NAU, NIV, NLT, NRS, TNK)로 번역하여 정확한 의미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번역본은 욥기 29:4의 וְיִדְבַּר 를 원래 의미인 ‘우정’이나 ‘친밀한 관계’로 번역했다(NIV, NLT, NRS, NAU). 하지만 『개역개정』은 무슨 이유인지 ‘기름’으로 번역하였다. 근거가 미비하다면, 원래 의미대로 번역하여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겠고, 두 가지 이상 번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본문에 써주고 나머지는 각주에 넣어주어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바로 아래에서 더 다루겠다.

4. 한 단어나 구가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한 경우 둘 다 넣으라

4.1. 대조적이거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창세기 25:18b의 וַיִּבְרָח 은 ‘~의 맞은편에’(개역개정, KJV, NRS, TNK)라고 번역되었으나, 이 전치사 관용구는 ‘~의 면전에서, 앞에서’뿐 아니라 ‘~와 대적하여’(in hostility, in defiance of: NAU, NIV, NLT)의 뜻도 갖고 있다. 창세기 25:18하반은 16:12에 기록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구절로서, 16:12d와 짝을 이루는 구절이다. 창세기 16:12는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문장 모두를 병행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전치사구의 보다 적절한 번역은 ‘~와 대적하여’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택하여 번역에 쓰고 각주에 나머지 하나의 번역을 제시해 주어 독자들이 다른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번역이 가능한 경우

출애굽기 17:16에 나오는 **כִּי יִשָּׂא עַל-יָדָיו**의 번역은 쉽지 않다. 개역개정, KJV, NAU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라고 번역했고, NIV는 “왜냐하면 손들이 여호와와 보좌를 향해 들렸다”와 “왜냐하면 손이 여호와와 보좌를 대항하여 들렸다” 두 가지로 번역했고, NLT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항하여 주먹을 들어올렸다”로 번역했으며, TNK는 “하나님 보좌 위의 손,” NRS는 “하나님의 깃발 위의 손”으로 번역하는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번역을 제공하고 다른 번역(들)은 각주에 넣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5. 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임의로 넣지 말고 인칭대명사 그대로 번역하라

창세기 9:27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에 의하면 27하반은 27상반과 의미상 연결되는 문장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주체가 야벳임을 은연중에 나타낸다(NIV, NLT). 하지만 원문에서는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וַיִּשְׁכֵּן בְּאֶמְלֵי שֵׁם**)’이라고 되어 있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주체가 야벳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27하반절의 의미를 해석해서 독자에게 번역해 주기 보다는 원문에 있는 인칭대명사를 그대로 두어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덧붙여 27절 전체는 기원의 의미를 담은 세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기를,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식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한다.

다른 예로, 창세기 39:4상반의 **וַיִּשְׂא אֱלֹהִים אֶת-בְּעֵינָיו**(lit. ‘그의 눈에, 목전에’)의 ‘그의’는 몇몇 번역본에서 보디발을 가리키는 ‘그의 주인’으로 번역되거나 암시되었다(『개역개정』, 『바른성경』, NLT, TNK). 그러나 ‘그의’(KJV, NAU, NIV, NRS)라고 번역해도 충분히 보디발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의 주인’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그의’로 번역하면 그가 단지 보디발뿐이 아닌 하나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4절과 연결되는 하반부 20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이나 간수 앞에서 얻은 은혜는 그들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נתן) 하나님의 은혜(חַנוּן)이며 인애(רַחֻם)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절의 בְּעֵינָיו의 인칭대명사 접미어를 ‘그의’로 번역한다면, 20절과 연결하여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 보디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보디발의 눈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은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위의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그녀’는 ‘여인’ 또는 ‘그 여인’으로 번역되었다(10, 12, 13, 14절). 그러나 ‘여인’이란 단어는 잠언 9:13의 אִשָּׁה כְּסִילֹתָ(『개역개정』에 ‘미련한 여인’으로 번역됨)처럼 원문에 אִשָּׁה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고, ‘그녀’라고 번역해도 한국어로 다 이해 되므로, ‘여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덧붙여, 구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시편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예는 원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으로 지칭된 경우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에서는 ‘당신’이 아닌 ‘주’로 번역된 경우이다. 한국어로 하나님을 존칭으로 부르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신’을 ‘주’로 번역했기 때문에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를 때와 3인칭으로 부르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를 때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기도나 긴밀한 관계를 나타냄을 함축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로 부를 때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거나 ‘당신’으로 부를 때와는 다른 상황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함축된 의미를 알아채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주 여호와와의 ‘주’를 의미할 때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2인칭에는 ‘당신’, 3인칭에는 ‘그’, ‘주’일 때는 ‘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6. 가능한 어순이나 문법 구조를 바꾸지 말라: 특히, 어순이나 문법 구조가 바뀌어 병행법이나 강조의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

창세기 12:1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가라(וָאָמַר)”

이다. 하지만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은 한국어 어순을 따라 번역하였으므로 “가라”는 명령이 그 문장의 맨 끝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원문의 “가라!”라는 명령을 강조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너는 가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라고 번역한다면, 한국어로도 어색하지 않고, “가라!”가 도치되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원문과 마찬가지로 “가라!”라는 명령을 강조할 수 있다.

시편 1:2상반의 **אֵם בְּחֹרֶת יְהוָה תִּפְצֹז**은 “그러나 여호와와의 율법에 그의 기쁨이 있다”라고 문자적인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문자적 번역이 한국어로 아주 매끄럽지 않게 들릴 수는 있으나, ‘여호와와의 율법’이란 구를 문장의 처음에 뒹으로써 율법을 강조할 수 있고, 2하반의 “또한 여호와와의 율법을 그가 밤낮으로 읊조린다”와 병행구가 되어 역시 여호와와의 율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처럼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또는 기뻐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은 1:1과 1:2하반에서처럼 주어를 ‘그’로 맞추고 ‘그가 ~을 하지 않는다/한다’의 구조로 맞추려는 의도일 수 있다. 하지만 1:2상반은 1:1과 1:2하반과 병행된 의미를 가지면서도 기본 구조인 ‘주어+동사’의 틀을 깨고 주어를 ‘그’에서 ‘그의 기쁨’으로 바꿈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지 않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본다.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인 역대하 36:23의 마지막 문장은 **עֲלֵה**(‘올라가라’)인데 『개역개정』, 『바른성경』은 이 마지막 문장을 그 앞의 문장인 **עִמּוּ אִלֵּיהִי יְהוָה**(‘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와 바꿔 번역하였다. 이 두 내용은 에스라 1:3에서도 같은 순서로 나오고, 순서를 바꿔서 번역해야 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의 어순을 철저히 따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7. 가능한 히브리어 수사법(병행법, 수미쌍관, 교차대구 등)을 표현하여 번역하라

시편 32편은 전체적으로 세 용어를 하나의 묶음으로 쓰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1-2와 5절은 시편 32편의 전체적 주제인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죄와 관련된 세 용어를 각각 사용한다. 먼저 1-2절에는 **פֶּשַׁע**, **חַטָּאת**, **עֲוֹן**의 순서로 나오고, 5절에는 **חַטָּאת**, **עֲוֹן**, **פֶּשַׁע**의 순서로서 1-2절에 나오는 죄와 관련된 용어를 순서만 바꿔 반복하여, 1-2절

과 5절의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1-2절의 **עָוֹן**, **חַטָּאת**, **יָוֵן**를 각각 허물, 죄, 간사로 번역하였으나, 5절에서는 **יָוֵן**을 ‘간사’가 아닌 ‘죄악’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5절의 죄악이 2절의 간사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게다가 5절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로 시작하는데 개역개정은 이 문장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와 순서를 바꿔 번역함으로써 원본에 나오는 세 용어의 언어유희도 나타내지 못했고 원본의 내용도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했다.

8. 가능한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는 같은 한국어 단어로 번역하라: 특히 반복되는 중요 단어나 언어유희 등의 예로 쓰일 때

요나 1장에는 **לָטֹא**(‘던지다’)이란 동사가 네 번 나오며 반복과 언어유희의 효과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에 던지셨다(4절).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던졌다(5절).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12절).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15절).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에 던지신 것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기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은 한국어로 표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4절의 ‘던지다’를 ‘내리시다’와 ‘보내다’로 번역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앞서 설명한 언어유희의 효과와 연결성이나 함축된 의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만다.

또 다른 예로서, 시편 1:1의 첫 단어 **אַשְׁרֵי**는 ‘얼마나 행복한가!(how happy!)’라는 뜻으로 시편 2:12의 마지막 문장의 첫 단어로 나와 수미쌍관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어는 1:1에서는 ‘복 있는’으로 번역되었고 2:12에는 ‘복이 있다’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두 단어를 유사한 뜻을 가진 각각 다른 두 품사로 이해하게 된다. 게다가 2:12의 경우에는 ‘복이 있다’가 문장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1:1과 연결시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אַשְׁרֵי**를 원래 뜻으로 번역하여 문장 맨 앞에 두어, 1:1은 ‘얼마나 행복한가! ... 사람은’으로, 2:12은 ‘얼마나 행복한가! ... 모든 이들은’으로 동일하게 번역한다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국어로 도치문이 형성되어 **אַשְׁרֵי**를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 있다.

(투고 일자: 2012. 10. 13.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